

EU Non Tariff Barriers Issue

유럽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 소비자 단체, 라벨 규정 강화 요구



유럽 소비자 단체 BEUC, 유럽 위원회에 식품 라벨 규정 강화 요구

식품 전문 언론매체인 Foodnavigator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 단체(European Consumer Organization, 이하 BEUC)가 유럽 위원회에 유럽 내 식품 표시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유럽 10개국의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BEUC는 'artisanal(장인의)' 또는 'whole grain(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같은 혼란스러운 용어를 정의하는 유럽 규칙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오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BEUC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소비자 오해를 일으킬 만한 식품 표시 3가지 관행이 기재되어 있음. 여기에는 'traditional(전통적)' 또는 'artisanal(장인 정신)'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과일을 거의 또는 전혀 함유하지 않은 음료 또는 유제품에 과일이 그려진 포장을 하거나, 보리와 섬유질이 포함된 빵, 비스킷 또는 파스타에 'whole grain(정제되지 않은 곡물)' 등의 용어를 표시하는 관행이 포함됨. BEUC는 이 세가지 관행은 “빙산의 일각” 이라고 덧붙임

BEUC의 모니크 고엔즈 대표는 “대부분의 파인애플과 코코넛 음료의 경우 과일 함유량은 제품의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는다. 또한 ‘grand-mother style(할머니의 맛)’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빵 제품에는 합성 첨가물이 들어 있다. 이는 소비자 단체가 유럽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링 사례들이다.”라고 주장함

EU Non Tariff Barriers Issue

유럽 비관세장벽 이슈



애매하거나 과장된 식품 표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 촉구

BEUC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응답자의 85%, 독일의 경우 응답자의 84%가 식품 라벨링을 불신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고엔즈 대표는 “독일과 네덜란드 내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0% 이상이 식품 라벨을 신뢰하지 않는다. 회원 단체의 압력으로 일부 제조업체는 포장을 보다 정직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와 회원국들도 향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함

BEUC는 식품 라벨을 보다 정직하게 만들도록 식품 표시 규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특히 BEUC는 유럽 위원회가 'traditional(전통적)' 또는 'artisanal(장인 정신)', 'natural(자연)'과 같은 식품 및 음료의 라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유럽에서 'whole grain(정제되지 않은 곡물)' 표시를 하려면 전체 곡물 함량의 최소값을 설정해야 하며, 과일과 같은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함유량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또한 과일 성분의 비율도 포장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그 외에 BEUC는 “유럽법에는 식품 라벨과 포장이 소비자를 오도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유럽법의 회색 지대를 이용하여 실제 식품의 품질을 과장 광고하고 있다.” 라고 첨언함

유럽 위원회 식품 표시 기준 개정 여부 확인해야...

유럽 내 권위있는 소비자 단체에 의해 'traditional(전통적)', 'artisanal(장인 정신)', 'whole grain(정제되지 않은 곡물)' 등의 식품 표시가 공식적으로 문제화된 만큼, 향후 유럽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식품 표시 제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유럽 위원회의 공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수출 제품 라벨 및 포장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EU, 라벨링 표기 관련 규정 사이트

https://ec.europa.eu/food/safety/labelling_nutrition/labelling_legislation_en

출처

Foodnavigator-asia, 'Consumers do not trust food labels and they have good reason': EU consumer organisation calls for tougher labelling regulation, 18.06